<제목 : 자 매 >

S# 1. 지영과 수현이 새로이사온 시골집에 이삿짐을 내려놓는 장면

지영은 짐을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한마디한다.

지영 : (못마땅한 표정) “ 넌..딸린 자식이야?”

그에 수현은 짐을 넣다가 내려놓는다

수현 : (입을 들썩이며) “뭐야 이거 자식있다더니 진짜 있나보네~? 너가 딸린자식이겠지,이 집! 우리 아빠라는 사람이 너희엄마라는 사람이랑 산다고 산거야! “

지영 : (차갑게 웃으며) “그래? 이 비싼가구들은 우리엄마가 다산거야 ! 다 !”

S# 2. 짐정리가 끝나고,지영의엄마인희선이 들어와 방을 정하는 장면

이삿짐센터직원들은 트럭차를 타고 떠난다.

희선 : (약간 불편한듯 웃으며)”지난번에 한번 봤었지? 이제 같이 사는구나.수현아.

OL.S#3.수현은 기억을 되짚어본다.희선과 수현의아빠인 유성과 수현이 만나는 장면

도시 어느 카페에서 한낮에 만난다.수현과 유성이 들어가니 앉아있던 희선이 일어나 인사한다.

희선:”왔네요.너가 수현이니?공부도 잘하게 생겼구나.반갑다.앞으로..불편할사이겠지만

잘해보는 것 어떻겠니?”

수현은 시선을 돌린다.

유성: (애써 웃으며)하하.애가 어려서 그래.수현이 너, 그게 어른한테 예의니?

OL.S#4.다시 희선이 말을 이어나가는 장면.

너는 2층을 쓰는게 어떠겠니? 우리지영이가 성격이 많이 예민해서 그래.음..지영이보다 한살동생이라고 했지?”

수현:(피식웃으며) “네,아줌마.”

수현은 2층으로 짐을 옮긴다.지영은 1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간다.

S# 5. 다음날,희선이 지영과 수현을 데리고 전학조취를 취하는 장면.

수현의 아빠,유성도 우유한잔을 먹더니 집을 나선다.

유성: (집안을 둘러보다)”갔다올게”

희선: “다녀와요”

희선이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선다.

지영: (노려보며)”쟤..쟤랑 다른학교맞지?”

수현은 혼자 현관문을 나와 혼자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희선:”그래,맞다.다른학교야.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지영:”나만 이러는줄 알아?쟤도 마찬가지야 그건 !!”

희선:”지영이 넌 세정여고,수현이는 누리고등학교야.여기서도 두 학교 다 공부잘하는학굔데,세정여고가 공부 좀 더 잘해.그정도 배정이면 됐지?”

그렇게 지영,희선,수현은 차를 타고 학교에간다.

운전하는 희선.

희선: “수현이 너는 누리고등학교에 배정됬어. 새친구들 만날 준비는 됐니?”

수현 :”…….”

그렇게 누리고등학교에 도착했다.

교무실에 들어가니,선생님 한명이 알아보고 온다.

선생님1:”이수현학생 어머니되십니까?”

희선: “네 ,오늘부터 개학맞죠?”

선생님1:”네 이수현학생 전학조취잘됐습니다. 오늘부터 일학년 이반에서 수업들으면 될껍니다.전학오기전에 서울에서 전교5등안에 들던학생이니 어느정도 시골인 이학교에서는 공부는 문제없이 해낼껍니다”

선생님2:(수현의 머리를 쓰담으며)”내가 일학년 이반 담임인데.공부 많이

잘하는구나?”

희선:”그럼,수현이 잘 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여기 근처 세정여고에 배정된 다른아이도 있거든요.수현아,잘들어가라”

수현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개만 까닥하고 일학년 이반 담임과 교실로 향한다.남은 희선과 지영은 세정여고로 간다.바로 옆학교인 세정여고.

세정여고 교무실로 들어간다.

선생님 한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3:”잘오셨습니다.기다리고 있었습니다.배지영학생.서울에서 줄곧 전교1등만 했던 학생이던데.”

희선:(웃으며)”네..우리지영이가 공부는 시키지 않아도 잘했죠”

선생님3:”믿을만한 학생이네요. 지영아,선생님 따라오면 된다.넌 이학년 육반이다”

지영은 선생님을 따라가고,희선은 인사한뒤 집으로 향한다.

S# 6.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난다.지영과 수현은 집에서도 서로 말이없다.

정말 어쩌다가 말을 하게 되면 싸울뿐이다.그런 싸우는 장면.

밤11시,공부를 하던 지영

지영:”목마르네..아 짜증나게..내려가야되?말아야되?”

지영은 1층 정수기가 있는 부엌으로 계단을 내려간다.

OL S#7.수현도 마침 목이 마른 장면

수현:”물좀 미리 갖다놓아야지 진짜..”

수현은 문을 벌컥 열고 부엌으로 향한다.

OL S#8. 계단 내려와서 지영은 물을 받고있는 장면

지영: (불만많은 표정)”너도 물먹으러 왔냐?”

지영은 싫지만 그나마 한살많은 언니라고 퉁명스럽게 말은 건넨다

수현:”너희집 물이냐?참나”

지영:(눈썹들썩이며)”미쳤냐?이게 보자하니까..봤던날부터 너거리더니.. 그땐 나이몰랐다치고.한번만 더 그래봐라~? 얼굴에 물부어버릴까 저년진짜..미친년이 망나니짓도 개분수에 맞게 해야지 “

수현은 그말듣자마자 먹던 물컵 소리나게 테이블에 놓는다.방문을 콱 닫는다.

수현:(인상쓰고)”쓸데없이 말걸지마라 진짜 !!!!!!!!!!”

S#9.성적표가 나오기라도 하면 경쟁이다.수현과 지영의 성적표나오는날이 같다.

밤 9시,학교를 마친 수현과 지영 각각 집에 들어온다.

희선:”지영이,수현이 왔니?소파에 앉아봐라.성적표 나오는 날이지?”

수현은 안색이 변한다.

수현:”저 아줌마한테 성적표 보여줄 생각없어요.아빠한테도 안보여줄때도 있는데”

희선:(수현쳐다보며)”너,대학안갈꺼야?아줌마아줌마 그러는데 안 익숙하다고 쳐.너희아빠랑 나,이제 혼인신고도 한 부부야.그나이면 무슨말인지 알지?배지영.원래 내딸도 내딸이고 너도 이제 내딸이야.배지영도 이제 호적에 이지영이다.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너 성적표 어서 줘봐라”

수현:(마지못해)”이지영이라……여기요”

희선:”지영이 너도 성적표는 줘봐라”

지영:”여기있어.난 끝까지 배지영이야.원래 우리아빠도 싫었어도 난 배지영이라고!”

지영은 씩씩대며 계단으로 올라가버린다.

지영은 전교석차 1등,수현은 전교석차 10등이다.

희선:”잘했어,둘다.그런데 수현이 너는 서울에서 줄곧 전교5등안이었다더니 여긴 시골인데 전교10등이구나”

수현:(흥분하며)”이게 공부할 상황이라고 보여져요?그리고 여기학교 공부잘해요~.그리고!아줌마가 그러니까 내가 아줌마는 아줌마일수밖에 없다는건데요?배지영,배지영은 몇등인데요?

희선:내가 괜히 그런다고 보니?너,이상황에도 대학은 가야해.그러니까 하는말이야.

지영이?걘 서울에서도 전교1등이었어 줄곧.이번 성적표도 전교석차 일등인데?”

수현:”아줌마가 많이 신경써주니까 당연한 결과아니에요?아짜증나진짜.”

수현은 문을 쾅닫고 들어가버린다.

S#10.이렇게 성적표받는 날만되면 큰 소리 안날일없는 지영과수현네.이렇게 하루하루가 흐르고 어느덧 일년이 되어가는 어느날.

밤 12시,지영은 어느때처럼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있었다.

지영: (머리를 돌리며)”아..이수현 또 나오는거아닌가?목마르네”

지영은 책을 접고 물을 마시러 계단을 내려온다.

지영:(물을마시며)”어?저건뭐지..?”

냉장고밑으로 반짝이는 물체가 보였다.

지영과수현을 제외하고는 모두잠을 자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부엌에 더깜깜한 냉장고밑.지영은 폰으로 빛을 비추어봤다.

지영:(깜짝놀래며)”뭐..뭐야! 칼..칼이잖아?”

지영이 칼을 꺼내들었다.일반 부엌칼이었다.그런데,그칼에 상반되어 비치는 어떤물체.

지영은 뒤를 돌아보았다.베란다로 교복을 입은 두 여학생이 보였다.

지영:(깜짝놀래며)!!!!!!!!!!!!!!!!!

두 여학생모두 교복은 달랐지만 얼굴은 지영,수현이었다.

배에는 피가 보였다.

OL S#11.지영과수현의 전생을 설명하는 장면.지영과수현은 전생에 친자매였다.그런데,지금 지영과수현이 사는 그 시골 그집에살았고,전생의 지영과수현은 술고래이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워 죽는 장면을 목격한다.

전생의 지영과수현은 그순간 부엌칼로 각자 배를 찌르고 죽게된다.

OL S#12. 다시 지영이 깜짝놀래던장면으로 돌아간다.

그전생의여학생들에게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목소리1:”우린..비참하게 죽었어.술고래이던아빠.그리고엄마가 죽게되고,우리도..!”

목소리2:”이게 너희전생이야.우리가 복수해줄꺼야.내가 수현이라는 애 찾아온거 대신에

너찾아온것도 너가 지금 엄마딸이라서야.너랑수현이,엄마는 살수있을거야.한마디만 남긴다.내일 너랑 수현이라는애 방에 낡은 쪽지하나가 있을거야.그거보고 피해.너희전생이라지만 지금 너희가 죽더라도 우린 도울수는없어.이게 우리가 해줄수있는 마지막이야.다 해결되고 나면 이집을 떠나.그리고 그칼은 떠날 때 버려”

지영:”도대체..도대체..지금도 죽고싶은 상황인데..왜 이런일만 만드는건데 왜..!”

곧 그목소리와함께 전생의 물체들은 사라지고 칼만 남았다.

지영은 할말을 잃고 2층 자신의방으로 가 침대에서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었다.

부들부들 떨며 겨우 잠들었다.

S#13.다음날,토요일.학교에가지않는날.지영은 일어나자마자 책상으로 갔다.

지영:”쪽지..쪽지가 있구나..내용이..”너 그리고 지영,어머니가 위험하다.

1층부엌옆에 베란다에 벽을 칼로세번치면 벽이무너지고 방이하나있다.저녁 8시전에

그곳으로 모두 피해라.”지난번에 벽을 부딪혔을 때 뭔가 문고리같은게 있긴했어.

지금이..지금이..12시..엄마가..회사에서7시에오는데..아저씨..아빠라는사람은 8시쯤오는것같고..아저씨는 어떻게되는거지..”

지영은 침착하게 책상 앞 의자에 다시앉았다.

지영 : “적어도 일곱시삼십분까지는 그 방으로 가야겠어.이수현..이수현방에도 있댔지?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거야.그냥 시간되면 끌고가야겠어.”

지영은 수학책을 펼치고 공부를 한다.

S#14.어느덧 저녁 일곱시.지영은 책을 덮고 수현의 방으로 향한다.

계단을 내려간다. 수현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간다.

지영 : “너..쪽지봤냐?”

수현: “뭐야 또. 쪽지?너가 쓴거아니냐?버렸는데?무슨 개 같은 소리야.”

지영: “장난치지말고 잘들어. 너,여덟시전에 엄마랑 나랑 어떤방으로 피해야해.

숨겨진 방이라는게 있어.그거라도 보면 믿겠지..일단 부엌으로 따라와!”

수현:”무슨 개 같은 소리냐고 진짜 돌았냐?”

지영:”..지금 무슨말을 하던 믿어야 넌 살수있을거야.믿고싶지않으면 관둬,그냥.

죽고싶으면 죽던가 누가 너걱정된대?나 우리엄마랑 둘만 피해있을거야.나도 무슨일 일어날지는 몰라도,오늘 거기로 안피해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쪽지그거,내가쓴거아니야.그럼난 나간다.”

수현은 세상에 때가많이 묻은 아이였지만 슬쩍 걱정이 되기시작한다.

수현:”뭐..쪽지읽어보니까 어떤방으로 가라고그러던데..어딘데 거기가.”

S#15.지영과 수현은 부엌으로 향한다.

지영은 냉장고앞에 멈춰선다.고개를 숙이더니 냉장고밑에서 칼을 꺼낸다.

수현:”뭐야?피안섞였다고 이제 살인사건까지 만들려고 작정을 하냐?”

지영:”미쳤냐 저게진짜..너 죽일거면 벌써죽였어.쪽지 제대로 안봤냐?칼로 벽치면 방이나온다고.저기 옆에 베란다에.”

수현:” ..아줌마는 피하고 우리아빠는?아빠는 안피해도 되냐?”

그 질문에 지영은 뜨끔했다.전생의 수현지영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들의 목소리,”너랑 수현이,엄마는 살수있을꺼야”라는 목소리가 머리에 울린다.

그 말로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전생을 통해 아빠라는 사람이 어떨지는 짐작을 했었다

지영:”아저씨?아저씨는 알아서 피할거라고 했어.쪽지에서.”

희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희선 :”주말인데 공부는 좀 했니?지영이 수현이 어딨니?”

지영:”나여기있어.엄마.(손목시계를 보며)지금 시간이..일곱시반이야.서둘러야 해.

이수현 너 긴 설명은 나중에 한다고했지?엄마 다른 소리말고 오늘은 우리가시키는대로 좀 따라줘.몇시간만..저 칼로 베란다에 벽치면 방이 나온대.그방에 좀 같이 있어.”

희선 :”베란다에 방같은건 없다,배지영 . 아니 이지영. 그리고 이제 너 친엄마 죽이고싶은생각까지 든거니?얘가 진짜..”

이쯤되자 지영이 괜히그러는게 아닌것같다는 위기를 직감한 수현.

수현”(웃으며)아니에요,아줌마,아니 엄마.그럴 것 같으면 저도 들어가고 배지영,언니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죽이는거에요 그게.진짜 말못할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들어가요 아줌마,네?”

희선:”엄마라고 그랬니?얘들이 진짜..좋다.몇시간동안 같이 들어가보고,아니 방이있는지도 모르겠네.너희들이 방을 만들었니?”

지영:”그냥 그렇다고 쳐.빨리들어가야해.이수현 너도 따라와 엄마도.”

S#16.지영과,수현과 희선은 베란다로간다.

그칼을 들고있던 지영은 벽을 세번친다.

벽이 허물어지고,손잡이가 있는 방문이 보인다.

희선:”세상에 !”

지영이 문을 열었다.바닥에는 짚이 깔려있었다.시골에 온지 일년이 다되었지만

한번도 동물따위를 키워본적도 없고 짚을 만져본적도 없는 지영,수현,희선.

그리고 그위에는 낡은 소파가 하나 있었다.시계도 하나 걸려있었다.

수현:”지금이..일곱시 사십분이야.”

지영과 수현 희선은 방으로 들어갔고 정신차린 지영은 서둘러 문을 잠갔다.

지영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지영:”무슨일이 벌어질려고 그러는걸까..”

수현:”혼자 뭐라고 중얼대..긴설명해준다면서! 무슨일인지 말해봐,어서.아줌마도 듣게”

지영:”믿기지 않겠지만 엄마도 너도 잘들어.너와 나,전생이라는게 있어.냉장고 밑에 칼이 있다는것도 놀랬어.그 칼,절대 내가 갖다놓은것도 아니라고.그 전생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무슨일이 일어나는거야.너와 나는 지금은 법적으로는 자매로 됬겠지만 자매라고 전혀생각하지않아.나도 그렇고 너도.그렇지만 전생에는 어쩔수없는 자매였다고,지금 무슨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덟시..여덟시가 지나면 알게될거야.이 방이 있다는 자체에도 제발 말을 믿으라고 !!”

수현:”무..무슨말 하는거야..지금..자매라고?전생?그딴게 어딨어 무슨.일단 여덟시조금 넘을때까지는 있을거니까 한번 보자고.”

다행히 희선은 지영의 말을 한번 믿기가 어렵지 믿게되면 끝까지 믿는 성격이었다.

방이 있다는 자체에 놀란 희선은 줄곧 지영의 말을 따르기로 생각했다.

희선:”그래..이제 여덟시가 다되가는구나”

S#17.여덟시를 오분남긴 일곱시 오십오분.

수현과 지영은 침을 삼켰다.

현관문으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유성이었다.

술고래가 되어 들어온 유성이었다.

지영과 수현이 잠긴 문의 작은 틈사이로 귀를 갖다대었다.

유성은 한손에는 술을 들고 계속 마시며 비틀댔다.

유성:”이것들 어디갔냐!! 마누라는 어디갔어!! 마누라는 불륜녀됐다고 이제 나까지 불륜남취급하냐!엉?! 아 저런 미친년을 봤냐 이수현! 그 이름뭐냐..마누라딸 지영이!내가 왔다는데 코빼기도 안보여?다죽자오늘 !!!!!!!!!!!!!!!!!!!!!!”

듣고 있던 수현은 당황해 어쩔줄 모른다.

수현:”예전에 내 친엄마랑 살때도 저랬어.그래서 이혼한거고.그래도 술안마실때는 멀쩡했어.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빠가 큰돈버는 사장인건 틀림없으니까..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날려고..나, 나갈래!”

지영:”안되 이수현! 숨죽이고 조용히 있어.지금나갔다간 죽을지도 모른다고!”

수현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조용히 있는다.

한편 유성은 라면을 끓여먹을려고 부엌으로 간다.

냄비를 꺼낸다.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물이 끓는다.

유성:”박희선 어딨어!!!!!!!!!칼 칼어딨냐..파나 썰까?”

술이 잔뜩 취한 채로 유성은 부엌에서 칼을 찾는다.

유성은 칼을 하나 뽑아들더니 말한다.

유성:”니들 오늘 제삿날이야 딸이고 뭐고!! 다죽자고 이것들 어딨냐아! 샅샅히 뒤질테다아!”

유성은 2층으로 올라간다.아무도 없다.

다시 내려온다.

그순간,지영이 실수로 재채기를 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지영과 수현.

아무리 아빠라지만 수현도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유성은 소리가 들렸던 부엌옆 베란다로 간다.

유성:”뭔소리들이냐아!엉?!문이냐아~~?문?! “

유성은 문을 발로 걷어찬다.

유성:”열릴때까지 차! 차! “

희선:”너희들 물러나있어라.내가 문열고 말해야겠다.”

지영:”안되,엄마.미쳤어?지금 열면 다죽어.그냥있어.다 사는 방법이있어.그러니까 이방에 있어라고 했던거라고 좀!!”

그순간,유성이 가스레인지위에올렸던 냄비.한참을 그냥 두었었다.불이 났다.

불은 순식간에 부엌을 둘러샀다.

유성은 술취한상태라 아무꺼리김없이 부엌으로 갔다.

유성:”물끓고 있구나아! 라면!”

불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시작했고,그 사이로 두 물체가 보였다.

전생의 수현과 지영.물론 다른 옛날 교복을 입은.

유성:”켁켁!!무슨연기냐아! 누구냐?거긴!! 마누랴나? 수현이 아니냐!마누라 딸내미년도 있고!”

유성이 다가가서 보았다.

배에 피가흐르는게 다보였다.술취한 유성의눈에도.

유성:”이런!! 무슨일이라냐..내가 안죽이니까 스스로 죽었다냐?”

그순간 눈앞에 두 물체는 사라지고 갑자기 유성의 목을 누군가가 죄어온다.

분명히 밧줄이었다.

유성이 뒤를 돌아볼려고 했지만 볼수가없었다.

유성:”켁!켁! 누가 나좀 살려주시오! 이것들아 날 죽일 작정이냐!”

그상태에서 누군가 유성을 부엌의 칼들을 정리해둔 싱크대밑 공간에 끌고간다.

유성이 눈을 크게 떠봤자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유성의 목을 더욱 죄어오고 목소리가 들린다.

유수정의목소리 :”당신죄값 이제 받는거야.방금도 딸들 죽이려고 했지?”

그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유성의 앞에 얼굴을 내민다.

이번에는 분명히 사람이었다.

유수정:”안녕하세요.부엌싱크대문이 열린채로 뭐하고계세요?저는 박희선씨 친구되는 사람인데,옆집에 이사왔거든요 인사드릴려고 현관문이 열려있길래 들어왔는데.”

유성의 눈에는 목을 죄어오는 밧줄이 보였지만 그 유수정이라는 인물에게는 보이지않았다.

그렇게 유성은 죽었다.

유성:”켁켁켁!!억!!윽!!”

유수정:”…..”

유성이 죽자 유수정이라는 인물은 말한다.

유수정:”저기 사람계신가요?옆집에서 왔는데,갑자기 주인분이 이러십니다!도와주실분 없으세요?”

S#18.잠자코있던 지영과 수현은 유성이 신음소리까지 듣고 죽음을 직감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떨던 수현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영:”엄마,이제 나가도 될것같아.엄마가 밖에 소리들리는 저분이랑 말하면 안되겠어?우린 지금..아무말도 못..못하겠어.”

분명 희선도 떨고있었다.

희선도 안에서 소리를 들으며 유성에대한 분노가 생김과 동시에 유성의죽음을 직감했다.

희선:”그래..나가보자”

희선이 문을 열었다.

문틈을 통해연기냄새를 맡았던 희선,수현,지영이었지만 문을여니 연기따위는 없었고 불이 난흔적도 없었다.희선이 얼른 냄비를 확인한다.냄비도 말끔히 없었다.

대신 부엌에서 서성거리는 여자한명이 보였다.유수정.

희선은 외부인에게 알려지게 하고싶지않아 거짓말을 한다.

희선:”죄송합니다!!제가 안주인입니다!! 어머!!제가 애들하고 말하는 사이였는데..우리 애들아빠가 심장발작을 잘 일으켜서요 이걸 어떻하나..”

유수정:”아..얼른 병원에..전화해드릴까요?”

희선:”아니요아니요!!제가 전화해야죠!!그만가보셔도 될것같아요!상황이 급해서요”

유수정:”그냥 쓰러지신것같으니까 별일없을겁니다.그럼 전이만..”

그렇게 옆집여자라는 유수정은 나간다.

뒤에 따라오던 지영과수현.

보통 이웃같으면 전화도 해주고 난리법석인데,이상하다고 느꼈다.

지영:”이수현..저 아줌마 이상하지 않냐?”

수현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른소리를 한다.

수현:”또 무슨소리야..아빠는?우리죽일려고 했..했었지?아빠가 실수로 죽은거야..불이나서..아님 누가 죽인거야..”

그순간 지영은 바닥에 떨어져있는 쪽지를 발견한다.

지영:”이건 또 뭐지..?”복수는 끝났다.이유성이 죽기전에 왔던 옆집여자,유수정은 내가 변한 모습이다.옆집여자는 다시 찾아봐도 없을거다.칼은 버리고 다른곳으로 세명이 떠나서 살아라.너희아버지의 시신은 벽이 허물어진 그방에 덮어둬라.하루뒤에 없어질것이다.우리는 전생의복수라고 하는것이기도하지만 어차피 너희는 너희아버지에의해 죽을뻔한 상황을 구해준것이다.원망하지말아라.그리고 너희전생의우리사건은 다른이름으로 1980년대쯤신문을 찾아보면 있을거다”라고?도데체..누가..이런짓을..”

수현이 쪽지를 빼앗았다.

수현:”이건 엄청난 범죄자가 꾸민짓일거야..이런일따위가 있을리 없잖아..”

희선:”둘다 조용해라.우릴 죽이려고 한 사람이다.수현이 너한텐 미안하지만 그 쪽지에 나와있는대로 시신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

S#19.희선,지영,수현은 시신을 옮길 준비를 한다.

희선 :”다시한번 확인하자.맥을 짚어봐야겠어.죽은게 확실하구나.수현아,미안하게 됐다”

죽은 유성의 손목에 맥을 짚어보던 희선이 말한다.

수현:(냉정한듯)”아니에요,저한테 미안해하실 필요없어요.지영언니 아니었으면 저랑 아줌마 둘다 예전에도 싫어했던 저희아빠라는 사람 때문에 죽었을거에요.저 그렇게 죽고싶지않아요.그인간 때문에.지영언니한테 고마워해야죠.언니,언니한테 평생 빚진거야.고마워.진짜”

숨기시작할때부터 슬쩍 언니란 말을 조금쓰더니 갑자기 지영언니라는 말을 쓰는 수현을 보고 지영도 희선도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다.

지영:”아니.내가 너구해준게 아니고 처음에 믿기지도 않았던 그 전생에 내모습이랑 너모습이 구해준거야.시간되면 다음에 말하자”

희선,지영,수현은 시신을 천으로 감싼다.그리고 벽이 허물어진 그 짚이있던 방에 넣는다.

방에서 나오던 희선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한다.

지영:”엄마!”

수현:”아줌마!”

지영과수현은 부축한다.

희선:”고맙다.그래도 수현이 네아빠 남편이었다고 아직 나한테 생각이 남아있나보구나.”

지영:”엄마,그건그렇고.하루지나면 없어진다고했어.그래서 내일되면 우린 여기 떠나야한다고.사망신고라도 해야하는거야?어떻게 하냐고.처음에 만났을 때 사업하는 사장이라면서.어느정도는 큰회사라던데.어떻게 하냐고진짜.”

OL #20. 희선은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과 지영과 유성이 처음만났을때를 회상한다.

유성은 서울에서 돈잘버는 큰 회사의 사장이다.수현의 친엄마는 사원일 때 만났던 사람.그렇지만 유성은 밖으로 여자들과 어울렸고 결국 이혼한다.술버릇도 있었다.그후수현의친엄마는 다 버리고 다른남자와 재혼을 한다.

희선은 서울의 S대학병원 의사.희선은 지영의친아빠와 같은 병원의사로 만났다.그렇지만지영의친아빠는병으로 죽었다.그후 유성과희선은 소개받고 만난다.유성과희선은 수현과 지영에게는 각각 처음에는 직장동료라고 속이다가 부모가 될사람이라고 말한다.

유성은 그래도 수현은 제대로 키울마음에 능력되는 여자를 소개받으려 했고,의사인 희선을 소개받고 유성은 이혼하고,희선은 그렇게 혼자2년정도 있다가 그렇게 만난다. 일년가까이 만나다가 결혼한다.결혼식은 하지않고 혼인신고만한다.그리고 회사는 그대로 다니면서 희선도 병원은 그대로 다니면서 서울근처 경기도 어느시골에 집을 얻고 출퇴근한다.그래서 유성이 죽었을 때 맥부터 확인했다.의사인 희선은.

그리고 술마신 유성이 희선에게 불륜녀라고 외친말은 자신이 밖으로 여자들과 어울렸을때를 감추기위한 자격지심으로 한말이다.소개받을 때 희선은 그것을 모르고 소개받았고 결혼을 했다.

그 모든 장면이 스쳐지나가고 지영과 유성이 처음 만나던 장면

희선:”인사해라.새아빠되실 분이다.큰기업사장이셔.너또래한살밑되는 딸도 한명있고.”

지영은 그나마 수현보다는 나은상황으로 보였다.수현처럼 아빠가 불륜을 일으킨것도 아니고.단지 지영의아빠가 죽은것뿐이었다. 그래도 쉽게 잊을수없었고 자신을 속이고 만났고,직장동료라던사람이 아빠로.게다가 재혼하는것도 마음에 들지않았다.

지영:”안녕하세요.지금이렇게 인사도하지만 저,아저씨 못받아들여요”

유성:”아..그래.너 같은 딸이있으면 좋겠구나.공부도 잘한다던데”

희선:”얘가 아직 어려서 이러는거에요.수현이도 그랬듯이”

OL S#21.다시 희선과 지영이 말하는 장면으로 돌아온다.

희선:”그게…”

수현:”사실..얘기 들으셨겠지만 저희엄마랑 이혼하셨다는 사실은 알거에요.

그게..저희친엄마는 저 아빠 다버리고 가셨는데..재혼도 하셨고..그건 알고계세요?재혼하셨다는거.저한테 가족은 아빠밖에없었어요.사실 아빠한테 있고싶지도 않았어요.아빠가 불륜일으켜서..밖에서 다른여자들이랑 어울려서 엄마가 이혼한거니까.아줌마 그거 아시고 결혼했어요?아니죠?저..그냥 마음에 안들었어도 그냥 다 참았어요.어차피 어떤 여자든 다른사람보다는 아줌마가 의사시고 술집여자가 엄마로 들어오는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정말..정말..죄송해요.”

수현은 훌쩍인다.

희선은 생각외로 덤덤하다.

희선:”아니다.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이니까.사실 술몇번 마시고 들어왔을 때 행실이나,몇시간전 방 에 있을때보고 다 짐작은 했다.이혼을 왜 했을까라던지 말이다.미안한데”

수현:”미안하실 것 없어요.”

지영:”뭐?우리엄마보고 불륜녀라고 했던 아저씨가..불륜남이었는거야?뭐진짜..이딴경우가 다있냐..”

수현:”말못해서 미안해,언니.”

지영:”아니.미안해할것없어.수현아.너 잘못아니니까.말했어도 우리엄만 그때 어차피 아저씨랑 결혼했을거야.어떻게 보면 예상했던사실이야.아까부터..그건됐고..엄마.사망신고는 어떻게 할거냐고?”

수현:”아줌마,쪽지에 오늘이 지나면 없어진댔잖아요..그러면 사망신고는 나중에..몇십년뒤에 하면 되지않을까요?일단 회사가 문제일것같은데요?사직서를 내던지 해야할것같은데?”

희선:”네 아빠라 그런지 상황파악을 잘하는구나.그래.사직서부터 내야할것같은데..병으로 핑계삼아서 내가 회사에 제출해도 부인으로 되어있으니 상관없을거다.일단 시신이 진짜 없어졌는지 내일 확인후에 다시말해보자.그만 들어가서 자거라.이집이 찜찜하긴 할거다.”

지영:”엄마,그러고 보니 어떻게 우리손으로 시신을 그렇게뒀어..나 두려워..이래도 되는거야?오늘 혼자 못잘것같은데?”

희선:”..넌 어떠니,수현아?지영이 넌 그럼..오늘 엄마랑 같이 자자.”

수현:”저..저는..”

지영:”수현이라고 안그렇겠어?지금 무섭다고.우린.수현아.너도 오늘만이라도 같이자자,괜찮겠지?”

수현:”알았어,언니.”

S#21.밤이됐고,그렇게 수현과 지영과 희선은 안방,같은방에서 한 침대에 세명이 잔다.

희선:”나도 찜찜하긴 하지만..참..나도 여기와서 저기 창문에 비치는 별이라는 걸 감상해본적이 없구나.시골인데.

지영:”나도 관심둔적 없었어,엄마.”

수현:”저도요,참 새롭네요.”

S#22.그렇게 아침이 됐고,셋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고 벽이허물어진 시신을 둔 그방으로 갔다.

희선이 살펴보니 시신이 없었다.

희선:”이럴리가…”

희선은 놀라며 확인했다.쪽지가 있었다.지영이 낚아채 읽었다.

지영:”시신이 사라졌을거다.회사에는 연락하지 않아도 될거다.사망에 관한 신고는 하지말아라.시신이 없으면 의심받는다.여길 나가자마자 가출신고를 해라.그때 만약 일이커져서 경찰이 수사를 해도 너희는 범인이 될가능성은 없다.풀리지못한 사건이 된다.그러고 난후 5년후,실종신고를 해라.곧 사망처리가 될것이다.이것으로 복수는 정말 끝이났다.이곳을 떠나라.칼을 버리고.”

희선:”이제 어쩔도리가 없어.서울로 가자.병원근처에 그 집,지영이 네 아빠랑 산 집이라 팔지는 않았었잖니.세 살던 사람도 나갈때가 됬으니,살면 될거다.짐을 챙기고 가서,이제 가출신고를 해야해.그리고..다시 살아야지.”

지영:”엄마랑 나랑?수현이는 어떻하고?”

수현:”저..친엄마는 재혼했어요..저랑 아빠..다버리고갔고,전화도 했었는데 아예연락도 끊으시고,전화번호도 갑자기 바꾸셔서 모르고요.마지막으로 한말이,이제 전화하지말라는 소리였어요”

희선:”너만 괜찮다면..우리 셋이 사는건 어떻겠니?아줌마는..이제 더 이상 재혼은 안할거다.”

수현:”정말..그래도 되요?”

지영:”안될거 없어..우리 진짜 욕까지 해가면서 싸웠었는데..전생에 그모습처럼 친자매처럼..될것같아.”

희선:”너희 호적으로 이미 자매야.친자매처럼 되어있어.짐챙길거 별로 없으니까 챙기고 지영이 너는 이제 고삼인데..전학해도 괜찮겠어?”

지영:”사실 나 서울에서 여기오는것도 처음에 진짜 싫었는데,그나마 서울보다는 시골이라서 경쟁이 덜됐고..좋은점도 있었어.그래도 갈수있으면..살던데로 가고싶어,엄마.”

수현:”저는 어디든 괜찮아요..제대로 된 가족만 있으면..”

희선:”걱정하지마라,수현아.이제 호적으로도 난 너엄마다.너 언니고.편하게 생각하고.지영이 너,이제 수현이랑 같은학교 다녀도 되겠지?전학도?”

전에 다른학교냐고 고집부리며 물었던 지영은 그게 부끄러워졌다.

지영:”아..그럼..엄마..”

S#23.그렇게 짐을싼 희선,지영,수현.지영은 칼을 시신을 뒀던.그렇지만 시신은 이제 없는.그방에 칼을 버린다.희선,지영,수현은 차를 타고 서울로향한다

서울의 S대학병원근처.희선이 일하는.근처의 희선의집으로 이사를 한다.

셋이서 짐을 바닥에 놓는다.

지영:”엄마.이집..진짜 오랜만이야.그렇지?수현이 너는 내방에서 자면 되겠다.내가 예전에 옷방에서 자고.각자 방 세개.딱 맞네?”

희선:”내일 너희전학조치바로 해야해.내일하루는 학교 안가도 될거다.성남내려가서 자료받고,서울에서 다시 학교가면되.배정받고.예전에 지영이 너 다니던 학교 되도..다닐수있겠어?”

지영:”친구들이야 연락은 계속하고있었고,소문같은거도 어차피 없었어.그냥..시골에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었어.전학갈 때 애들한테.선생님한테는 다르게 엄마가 말했었지만”

희선:”아,미안하다.수현아.수현이 넌 지영언니랑 학교같이다니는거 어떻겠니?배정받아봐야알겠지만..이근처에서는 비슷한 학교갈거야.아마.지영이가 다니던 학교갈수도 있고.”

수현:”이제 괜찮아요”

지영:”엄마..저기..가출신고는?”

희선:”아..그래..전학조치는 내일하도록하고..오늘 가출신고를 해야하겠구나.짐정리 다하고,지영이 너가 수현이 방구경좀 시켜줘라.엄마는 나갔다와야겠다.신고하러”

지영:”알았어,엄마.”

S#24.희선은 주차장에 차를 타러간다.

차에 탄 희선.

희선:”이거..최소한 금요일까지는 회사사람들을 봤을테고.가출신고를 해야겠어.가출신고를 일단 한다음,어차피5년안에 시신이 발견되지않을테니..그때 실종신고를 하면,사망처리가 곧 될거야..사장인데..아무래도 큰 조사가 되지않을까..의심받으면 어떻고..아니야.이일은 그집에서 일어난 모든일들을 억지로라도 믿어야만해..”

희선은 근처 경찰서로 향한다.

희선:”안녕하세요,가출신고하러왔는데요.이를 어쩌나..아..”

희선은 두려운 마음에 떨리기도 하지만 더 떨리는 척을 한다.

경찰:”네.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사진 가져오셨죠?”

희선:”네”

희선은 자료들을 모두 꺼내어 내민다.

경찰:”네 신고절차는 여기까지입니다.가셔도 됩니다.신고처리 됬고요.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고는 끝났고,희선은 집으로 향한다.

S#25.그시간,지영은 수현에게 방을 구경시킨다.

지영:”아..아직 어색하지?저기 안방은 엄마가 쓸거고,저기가 너방이야.여기가 내방이고.”

수현:”전에 미안했어,지영언니.언니가 싫어서 그런게 아니고..”

지영:”(따뜻하게)너가 무슨말 할지 알아.됐어.이제.잘지내자,수현아”

곧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희선이 들어온다.

희선:”짐정리는?다했구나?그래.신고절차는 밟았다.5년동안 잘지내고,실종신고하면 사망신고처리는 곧 나오게 될거다.”

수현:”저기..아줌마.저 아무래도..불안해요.제가 예전에 교회다녔었거든요.회개라도 하게 교회다녀도 될까요?되시면 아줌마도 언니도요.”

지영:”그래?나도 잠깐 교회다녔었긴 한데.끝까지 못다녔어.”

희선:”지금 마침 우린 그래도 죄를 지었어.교회다니는것도 나쁘지않겠구나.그렇지만 이근처에서 교회를 다니게되면 사람들 이목이 신경쓰이게 된다.사장이 잘보이니 보이지않니로 해서 말이야.다니고싶으면 지영언니랑 같이다니던지 해라,수현아.미안하다.일이해결되면 꼭 같이 다니자구나.”

수현:”아,아니에요.아줌마.언니는..어때?”

지영:”좋아..같이 다녀보자.그건 그렇고.엄마,회사에는 어떻게 해?”

희선:”가출신고를 할 때 거기 신분이 드러나니,회사에도 연락이 갈꺼다”

S#26.다음날,전학조치.오후2시쯤 지영의 폰으로 전화가 온다.

먼저 나갔었던 희선의 목소리

희선:”지영아.그래 조치잘 됐고.너랑 수현이 같은학교야.너 다니던 학교.구정여고.수현이 잘데리고 다녀라.내일부터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고.내일 하루만 엄마 가주면 되는거지?”

지영:”그래 엄마”

수현:”언니,어느학교래?”

지영:”구정여고.넌 어느학교 다녔었댔지?”

수현:”뭐?구정여고?동은 다른데 살았지만..나도 구정여고 다녔어.어떻게..한번도 못본거야?다니면서?”

지영:”나도 너 본적이 없어.아마..반이 많으니까.우리학교는.이것 참..신기하지 않냐?”

수현:”우리학교 명문이잖아,언니.어떻게 공부했어?일학년때 심화반했어?나 심화반했었다?”

지영:”자랑하는거냐! 나도 했거든?”

수현과 지영은 동시에 웃는다.

수현과 지영의 눈에는 보이지않는다.

전생의모습들,수현의지영의 모습이 베란다쪽에 서있다.따뜻한 웃음을 머금는다.할일을 마치 다하고 떠나는 모습처럼.

OL S#27. 수현과 지영은 기억을 못하지만 구정여고에서 화장실에서 잠깐 봤었다.

그저 스쳐지나갔다.손을 씻고 나갈 때.

S#28.다음날,수현과 지영,희선은 구정여고로 간다.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기다린다.

선생님4:”배지영.지영아,오랜만이다이거?다시만나는구나.삼학년 육반인데.너 일학년때담임그대로.나다.잘지내보자.이제 이학기 시작인데.성적관리는 여전히 잘했더구나.서울쪽 어느대학이라도 가겠어.지영이는.우리학교에 큰인물이 다시돌아왔다니까.”

희선:”별말씀을요,우리 수현이는?”

선생님4:”아,동생도 있었니 지영이가?이학년이던데.”

말하면서 갑자기 선생님 얼굴이 당황을 한다.동생얘기를 하면서

지영:”선생님도 예전에 얘기들으셨잖아요.전에 전학갈 때.이제 친동생이에요.애들한테도 잠시 맡겨뒀다고 말하더라도 그렇게 말할거에요,친동생이라고.선생님 전에 알던얘기는 애들한테 안했으니까 하지 말아주세요.얘,공부엄청잘해요.”

선생님4:”아..알겠다,지영아.어디보자..이수현.우리학교학생이었구나?선생님은 이학년담당이여서 잘몰랐다.전교 5등..성남에서도 전교..둘다 멋지구나?애들이.”

선생님4는 멋쩍은 듯 웃으며 수현에게 칭찬을 한다.

희선:”그럼,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희선은 인사를 하고 나간다.

선생님4:”음..서선영선생님! 수현이 담임되시는데요?전학생이요.원래 우리학교 학생이었다가 다시왔네요”

서선영선생님:”아 네네! 수현이니?공부 잘했더구나? 이학년 반배정 담임은 나고 ,따라오면 되”

그렇게 지영과 수현은 각자 반으로 간다.

그러다 5교시쉬는시간.

지영은 수현이 있는 이학년 오반으로 내려온다.

지영과 수현은 학교운동장근처 벤치로 간다.

지영:”수현아!친구는?좀 만들었어?아까도 말했듯이..나..엄마가 바빠서..친척집에 잠시맡겨둔 동생..친동생이라고 했어.넌?내가..문제가 되는건 아니지?문제되면 언제라도 그냥 나 씹고 넘어가 모르는척 괜찮아 난 “

수현:”아니야.언니..그러고보니까..예전에 만났으면 나 언니한테 존댓말 써야하는데.선배한테..그냥 만나자마자 말트다보니까 지금 어색해서 존댓말은 못하겠어.그리고..나 친구들 그래도 아는애들 많아서 괜찮아.그리고..애들한테는 나도 비슷하게 말했어.대신에..예전에 우리엄마아는애들있는데..걔들은 중학교때친구라서..상관없어..지금만나도..뭐..”

S#29.그렇게 지영과 수현은 그 5년.서울에 있는 대학중 최상위대학.S대에 합격했다.

그것도 같은과로.법학과를 간다.

지영과 수현의 꿈은 판사,변호사였다.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처럼 여전히 공부는 열심히 해 수석을 차지하고,잘 지낸다.

그렇게 5년후.

지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S대 로스쿨에 들어간다.

수현은 S대 4학년이 되었다.

S#30.그렇게법원의 6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희선은 실종신고를 하고,법원에서 사망처리에 대한 것을 처리하러

지영과 수현과함께 법원에 참석한다.

지영과 수현은 이유성이 사망처리 되는 것을 확인한다.

거기서 바쁜 희선은 먼저 급히 가고,지영과 수현은 천천히

법원을 걸어나오며,

지영:(한숨쉬며)내가..이래서..나중에 누군가의 사망처리를 할지도 모르는데..그게..가능할까?”

수현:”언니,친딸이었던 내가 인정하는데 언니가 못할꺼있어?우리가 죽인거 아니야.단지 목격한거 뿐이고.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언니는.잘할수있을거야.분명히.그리고 앞으로 잘하면되.”

지영은 그저 말없이 웃는다.

그때,전에 봤던 옆집여자라는 유수정이라는 인물이 지나간다.

지영은 깜짝 놀랜다.먼저 다가가 인사한다.

지영:”아..안녕하세요?몇 년전에..뵌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수정:”아..그때뵜었던것같네요.아버지가 아프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지영:”네,괜찮아지셨죠.여기는 무슨일로?”

유수정:”아,저 법원에서 근무하거든요.”

수현이 귓속말한다

수현:”언니..저사람..그쪽지에서 봤던 인물아니야?사람..아니잖아?”

지영:(유수정에게 들리지않게 조용히 옆으로 잠깐 말한다)”아니야.지금이 사람이 북적이고 해가 멀쩡히 떠있는 낮인데..저여자랑 쪽지는 관련없었을거야..그래..아무것도 아닐거야.”

유수정:”그럼 전이만”

유수정이 인사하고 떠난다.

수현:”언니,오늘은 정신없으니까 그냥 가고,내일 와서 다시 확인해.저사람 법원에서..진짜 근무하는거 맞아?”

S#31.다음날,수현과 지영은 법원으로 간다.

법원 1층 사무실,직원에게 묻는다.

수현:”저기요,제가 아시던 분이라서 그러는데요.지금 연락처가 없거든요.이름은 유수정이라고 여기서 근무한다던데.그런분 계시나요?”

직원:”유수정이요?보자..검색해보니까..그런 분은 없는데요?왜그러시는데요?”

수현:”아 아니에요.저희가 잘못들었나봐요”

지영:”뭐?없다고?거짓말한건가?”

수현:”이상해,진짜 그사람..누굴까..?”

수현과 지영은 여러 대화를 나누며 다시 법원을 나온다.

지영:”수현아..이제 엄마..어제 너가 그랬던 것처럼..엄마라고 부를거지?”

수현:”그럼 진짜엄마지 뭐야?아줌마야?”

지영:”야,너 그럴래?”

지영과 수현은 웃는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친자매처럼,잘 지낸다.

뒤에서 수현과 지영의 전생의 모습들이 나타나 몰래 수현과 지영을 지긋이 웃으며 쳐다본다

여기서 끝을 맺는다.

인물소개서

이유성: 딸 이수현의 아빠되는 사람.수현의 친엄마와 P그룹의 사원시절부터 만나 결혼했으나 밖으로 다른여자들과 어울리게 되어 이혼당한다.그것으로 수현의 친엄마는 수현과 유성을 버리고 떠나 재혼한다.더 이상 수현에게 연락하지 말라고까지한다.P그룹의 사장으로 돈도 잘번다.그러나 술버릇이 안좋다.술만먹으면 성격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지영의엄마,희선과 만나 결혼한다.서울인근 경기도 성남의 시골로 이사가 집을 구하고 살면서 출퇴근하게 된다.그렇지만,또 술버릇으로 유성으로 인해 수현과지영,희선이 목숨을 잃을뻔한 상황에서 전생의수현과지영의모습이 구해준다.

박희선:딸 배지영의 엄마되는 사람.지영의 친아빠와 S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같이 일하다가 결혼했지만,지영의아빠는 병으로 죽게된다.그후 지인의 소개로 유성을 만나고 결혼한다.역시 시골로 집을 옮겨 출퇴근하게 된다.은근히 자신의딸 지영을 챙기는 모습이 있고지영의말만 들어주는 면이 있다.그렇지만 수현에게 잘해주며 수현에게도 신경쓴다.수현의아빠와 잘지내는듯하지만,점점 내막을 알아가 수현의아빠의 정체를 알게된다.그리고 지영의말을 일단 믿어주는 면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죽음을 당할뻔한.수현의아빠의정체를 알게된후 시신을 같이 옮겨둔다 그렇지만 내면에는 죄책감도 있다.

배지영: 박희선의 딸.서울 구정여고를 다니다가 희선과 유성 때문에 시골의 세정여고로 전학을 가게된다.서울에서도 시골에서도 공부는 줄곧 전교1등을 유지한다.사리판단을 잘하며 냉정한 면이있다.수현과 처음만나는 과정에서도 역시 그것을 마음에 들지않았던 지영은 말을 일부러 더 예의없이 한다.그렇지만 속은 그렇게 나쁜아이가 아니다.그 유성이죽는 사건으로 인해 수현과 가까워지고,친자매처럼 정말 잘지내게 된다.수현도 언니로써 잘챙긴다.

이수현:이유성의 딸.자신의 아빠와 친엄마와 지낼때도 술버릇 때문에 자주 싸우는 것을 자주 목격한 수현.그게 밖에서 여자들과 어울리는것도 있다는 것을 아는 수현은 속으로 유성을 원망하고 싫어한다.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친엄마와 있고싶었지만 친엄마에게 전화도 걸었지만 친엄마의대답은 연락하지말라는 것.상처가 많은 아이다.그러다가 유성에 의해 길러지다 희선을 만난다.처음에는 희선이 유성을 꼬드겨 이혼시켰고,자신을 속이다가 나중에 결혼까지 한게된거라고 믿는다.그래서 희선에게도 못되게 군다.그렇지만 희선이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된후에는 다르게 생각을 한다.정말 이혼을 한후에 소개로 만난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믿는다.그후 유성이 밖으로 다른여자들과 어울린 것을 알게될까봐 두려워한다.그래서 말을 하지않았다.그나마 술집여자와 유성이 결혼해 자신의엄마로 맞아들이는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다.그리고 지영에게도 일부러 더 못되게 군다.그렇지만 지영도 성격이 만만하지 않아 말이 막히기도 한다.지영에게도 처음만났을때부터 한살위언니가 지영이지만 존댓말을 쓰지도 않고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는다.그래서 지영의 미움을 받지만 그사건으로 인해 지영과도 가까워지며 친자매처럼 지내게 되며 지영에게도 언니라고 부르게된다.희선과도 친엄마처럼 지내게 된다.

유수정:그사건때 옆집여자라면서 희선,지영,수현에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그후 쪽지에는 그 여자 이름이 새겨져있다.전생의 모습이 변한것이라고.그후 지영과수현은 그여자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그러다가 5년후 법원에서 신고후 나오다 그여자를 만나게되는데,법원에서 근무한다던 유수정.알아보니 그런여자는 없다.의문의 여자다.

그사건때 유성이살아있었다면,유성의 기억에는 마지막으로 죽을 때 본여자다.

죽을 때 섬뜩한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여자.분명 유수정의 목소리.

쪽지에도 나왔지만 유수정은 전생의 수현과지영의모습이 잠시변했던 인간의 모습이다.

선생님4:지영의 서울 구정여고 담임.평소에 전교1등의 지영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다시 전학온 지영을 반기지만,전에 들었던 이혼사실과 함께 수현이라는 동생이 생긴것에 당황을 한다.